

# 영흥송전선로안산시구간지상건설반대결의안

의안 번호	783
----------	-----

발의년월일 : 1999. 7. 7.

발 의 자 : 임 흥 무 의원  
외 8 인

## 1. 주 문

- 시화호와 대부도 지역은 수도권중에서 유일하게 자연 습지나 철새등 자연 생태계를 볼 수 있는 곳으로 희망을 주는 시화호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주민간 시민 연대회의를 결성하는등 안산시민 모두가 시화호 및 대부도 지역의 환경 피해를 주는 개발을 막는데 온힘을 기울여 오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흥송전선로의 대부도 - 시화호 - 신길동 지역을 잇는 안산시구간 지상 건설 계획은 지역주민의 이익은 물론 국가이익에도 반하며 기업 이익에만 집착한 편의주의적 계획으로, 이를 추진할 경우 안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화호의 자연 생태공원 조성 계획등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며 지역 여건과 대부도 및 신길동 지역 주민의 여론을 외면하는 불합리한 처사임.
- 따라서 영흥 송전선로의 안산시구간 지상건설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국가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건설해야 할 경우 지중화하여 건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 2. 제 안 이 유

- 그 동안 오염된 물의 대명사였던 시화호가 환경단체 및 시민의 많은 노력의 결과로 시화호가 철새들의 중요한 도래지로 변모하는등 이제 시화호는 지역주민 모두가 자연생태 공원으로 보호 하여야 할 희망의 호수로 변모 해 가고 있으며, 대부도 지역은 도심속의 천혜의 자연 경관 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임.
- 그러나 한국전력공사에서 국가기반 시설이라는 이유로 지역 여건을 무시하고 추진하고 있는 영흥송전선로의 대부도-시화호-신길동 지역을 잇는 안산시구간 지상건설 계획은 담수호의 포기로 인해 새로이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농업단지 및 생태공원 조성등 시화호 개발계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대부도, 신길동 지역 주민의 여론과 지역 실정을 전혀 고려치 않는 불합리한 처사이며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음.
- 따라서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56만 안산시민과 함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영흥 송전선로의 안산시 구간 지상건설 계획을 절대 반대하며, 불가피 하게 건설해야 할 경우 지중화하여 건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 우 리 의 결 의

(영흥송전선로안산시구간지상건설반대결의문)

우리 안산시 의회 의원은 56만 안산시민과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영흥 송전선로의 안산시 구간지상건설 계획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 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수도권과 경기서남부 및 안산, 시흥지역의 전력공급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영흥 송전선로 건설계획 중 안산시구간 지상건설 계획은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지역여건과 주민 여론을 무시하는 불합리한 처사이며,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이를 절대 반대한다
2. 그 동안 환경단체 및 시민의 많은 노력의 결과로 점차 자연 생태공원으로 변모해 가는 시화호에 대한 반 환경적인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영흥송전선로의 안산시구간 지상건설 계획을 절대 반대하며, 불가피하게 건설해야 할 경우 전 구간을 지중화하여 건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우리 안산시 의회의원 일동은 56만 안산시민과 함께 영흥 송전선로의 안산시구간 지상건설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1999. 7. 10.

안 산 시 의 회 의 원 일 동